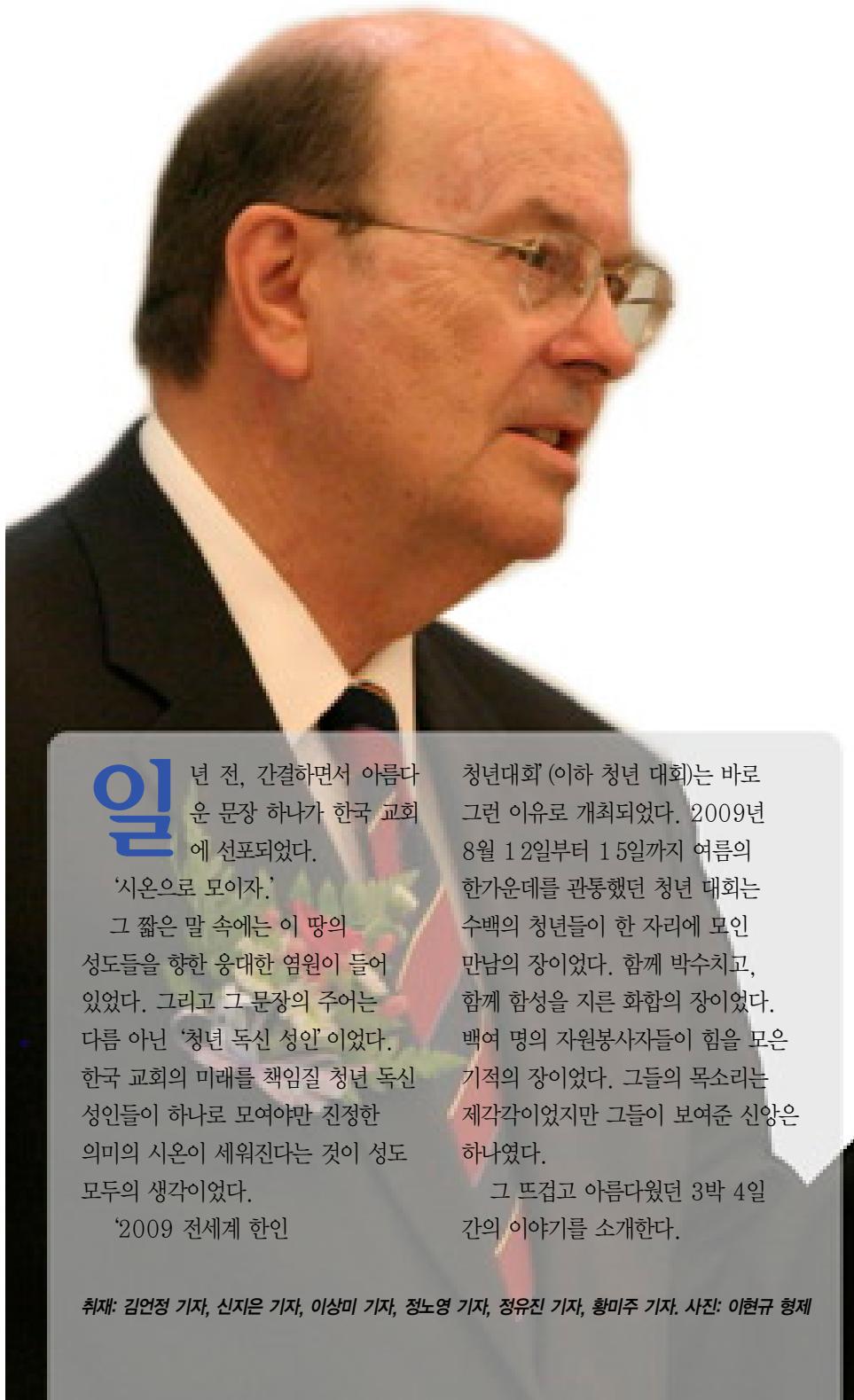


천의 함성, 하나님의 신양



일

년 전,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문장 하나가 한국 교회에 선포되었다.

‘시온으로 모이자.’

그 짧은 말 속에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응대한 염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주어는 다름 아닌 ‘청년 독신 성인’이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독신 성인들이 하나로 모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시온이 세워진다는 것이 성도 모두의 생각이었다.

‘2009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이하 청년 대회)는 바로 그런 이유로 개최되었다. 2009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름의 한가운데를 관통했던 청년 대회는 수백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남의 장이었다. 함께 박수치고, 함께 함성을 지른 화합의 장이었다. 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은 기적의 장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신양은 하나였다.

그 뜨겁고 아름다웠던 3박 4일 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적이 시작되다—8월 12일

청년 대회는 이미 8월 11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청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영적 모임이 8월 11일 저녁, 영등포 와드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 모임에 참석한 신권 지도자와 대회 준비 위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청년 대회가 무사히 치러져 한국 교회 발전의 시작점이 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일까, 전달부터 내린 많은 비도, 12일 오전부터 찌푸리기 시작한 하늘도 청년 대회의 열기를 막지는 못했다. 대회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삼삼오오 짹을 지어 등록을 하고 이름표를 받는 그들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정오를 넘으면서는 대형버스를 타고 대구와 마산, 그리고 부산 청년들이 속속 도착했다. 반기움이 섞인 팔도 사투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진행 요원들의 손길도 더 바빠졌다. 지하철역에도 안내자가 배치되었다. ‘2009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라고 적힌 피켓을 든 그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성인 회원들이었다.

이번 청년 대회는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인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배려였다. 대회 준비는 물론이고 대회 당일의 안내, 등록, 촬영, 진행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강서 스테이크의 전사랑 자매(왼쪽)는 이번이 처음 참석하는 청년 대회다. 그녀는 문화의 밤 활동을 준비하면서 신앙을 배웠다.
최훈기 형제(오른쪽)는 멕시코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청년 대회를 위해 귀국했다. 그는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대회를 통해 엿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성인 회원들이 맡았다. 누군가는 뇌약볕에서 하루 종일 안내 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백 명 분의 식사를 배식했다. 그래도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자녀 또래의 청년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청년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문화의 밤 리허설이 끝난 것은 오후 3시. 그때쯤에는 대회장의 1층 관람석은 물론이고 2층의 앞쪽까지도 거의 다 채워졌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대회의 시작을 목격하려는 성인 회원들도 상당 수였다. 관람석 전체를 맴돌던 기대에 찬 웅성거림이 잦아든 것은 북아시아지역 회장단인 게리 이 스티븐슨 회장과 최윤한 장로 부부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지역 칠십인인 오희근 장로와 배덕수 장로도 함께였다.

그리고 3시 30분. ‘2009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의 역사적인 막이 올랐다.

개회 선언은 오희근 장로가 했다. 대회 준비 위원장으로 봉사했던 그는 대회 목표를 낭독한 뒤,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에 오신 청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짧지만 힘찬 말로 개회사를 대신했다.

축하 메시지를 전한 스티븐슨 회장은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밝힌 뒤, 한강에 대한 남다른 감상을 더했다. “어제 공항에서 호텔로 가면서 비가 내리는 한강을 보았습니다. 그 느낌이 특별했습니다. 저는 한강이 한국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슨 회장은 끝으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 모임이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러분이 바로 시온입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는 ‘시온으로 모이자’라는 동명의 영상물 상영이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이 영상물은 격동의 시기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근대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복음의 씨앗을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화면 곳곳에서 초기 신앙의 선배들의 승고한 모습이 비칠 때마다 성인들은 물론이고 청년들도 눈물을 붉혔다. 특히 지난 2005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의 모습이 비치자 대회장에는 홀짝이는 소리가 넘쳐났다. 영상물이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했다. “아름다운 역사가 흐르는 한국, 한국 교회의 개척자들이 눈물과 땀으로 일군 이 신앙의 땅으로 모이자. 모여서 시온을 세우자.” 백 마디 말보다도 훨씬 호소력

짙은 영상물에 회원들은 눈물 섞인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진행된 문화의 밤에서는 총 15개 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전국 각 지역의 청년들과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찬조 출연한 성인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한국 관리 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셈여림 합창단’이 서막을 열었다. 그들의 신나는 무대가 끝난 후 서울 스테이크, 서울 강서 스테이크, 서울 동 스테이크,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들로 구성된 창작 무용 팀이 무대에 올랐다. 창작 무용은 한국 전통의 몸짓과 음악, 그리고 해학이 깃든 탈속에 선과 악의 대립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다음은 부산과 마산, 그리고 울산 청년들이 준비한 댄스 스포츠였다. 후기 성도 청년들만의 견전한 문화로 자리 잡은 댄스 스포츠. 이번 공연은 댄스 경연 대회나 50주년 문화의 밤을 거치면서 몰라보게 향상된 청년 독신들의 춤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세 번째 공연은 류경아 자매의 독창이었다. 뮤지컬 ‘캣츠’ 중 ‘Memory’를 부른 류 자매는 풍부한 성량으로 무대를 장악하고 객석을 사로잡았다.

서울 남 스테이크와 서울 강서





맨 위부터 옆 페이지 하단까지: 청작 무용팀의 탈춤, 댄스 스포츠팀의 공연, 조셉 스미스의 순교를 다룬 연극, 기악 퍼포먼스팀의 피날레, 호남우도농악을 선보인 사물놀이팀, 성전 결혼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전한 라디오 쇼, 역동적인 에어로빅,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 준 청년 합창단, 화려한 색감이 돋보였던 부채춤.

스테이크, 그리고 인천 스테이크 청년들이 모인 ‘청년 합창단’은 개회식에 이어 문화의 밤에서도 빛을 발했다. 가곡 ‘보리밭’, ‘가고파’, ‘마을’로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 다음 공연은 전주 스테이크 청년들이 준비한

‘호남우도농악’이었다. 날카롭고 선명한 팽과리 소리가 앞장서고, 북의 육중한 울림이 중심을 잡으면 장구와 징이 맛깔스럽게 어우러졌다. 네 가지 악기가 정확한 박자로 맞물려 신명나는 한 판을 벌인 가운데 상모돌리기가 더해졌다.

뒤이어 펼쳐진 대구 스테이크의 ‘에어로빅’ 공연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관객석을 뜨겁게 달구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청년들의 건강하고 힘찬 울동이 이어졌고, 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공연에 관객들은 함성과 박수, 그리고 탄성을 쏟아냈다.

‘에어로빅’ 공연 바로 뒤에 펼쳐진 바이올린 연주. ‘죽음의 무도’를 연주한 허은경 자매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연주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진향처럼 맴돌던 무대는 청주 스테이크와 대전 스테이크, 그리고 홍성 지방부가 펼쳐 보인 ‘기악 퍼포먼스’가 펼쳐지면서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랑에 관한 여러 청년들의 생각이 영상으로 흘러나오고, 감미로운 연주와 노래가 그 뒤를 이었다. 그들 스스로가 ‘서툰 소리’라고 밝힌 기악 퍼포먼스였지만 공연 속에 담긴 사랑과 열정만은 단연 최고였다. 기악 퍼포먼스가 물러간 무대는 ‘온누리 합창단’이 대신했다. 그들이 부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디즈니 판타지’는 오랜 연륜에서 묻어나는 원숙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50주년 문화의 밤’에서도 멋진 연극을 선보였던 광주 스테이크 청년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 ‘라디오 쇼’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배우들의 능숙한 연기에 대회장은 순식간에 라디오 공개 방송 현장으로 변했고, 관객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노래에 웃음과 박수를 보냈다. 특히 유쾌한 내용 속에 성전 결혼의 중요성을 더한 점이 청년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다. ‘라디오 쇼’에 이어서는 김지은 자매의 독창이 펼쳐졌다. 김 자매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바이올린과 피아노 반주가 어우러져 더욱 황홀한 공연이 되었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와 안양 스테이크, 그리고 수원 스테이크 청년들이 준비한 공연 역시 연극이었다. ‘슬픔에 잠긴 나그네’라는 제목에서 짐작하듯이 연극은 조셉 스미스의 순교가 배경이었다. 조셉 스미스와 여러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최후를 맞이했던 그 하루, 총성이 난무하고 유혈이 냉자했던 하루였지만, 그날은 아름답고 영적이었음을 연극은 차분한 어조로 보여주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사람은 테너 한상인 형제였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을 힘찬 음성으로 노래한 한상인 형제는 끝내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

술 가쁘게 달려온 문화의 밤은 스티븐슨 회장의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 스티븐슨 회장은 청년들의 열정과 재능에 박수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했던 분과 관객들 모두 술, 마약, 담배 없이 오직 주님의 영과 함께 하면서 즐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밤이었습니다.”

역동적이고 감동적이었던 청년 대회의 첫 날이 그렇게 저물었다. 아무도 그 성사를 장담하지 못했던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 하지만 세계 곳곳, 전국 구석구석에서 모인 후기 성도 청년들은 모든 걱정을 불식시켰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성신과 함께였다. 기적은 시작되었다.



듣고, 듣고, 춤추다~8월 13일

청년 대회의 둘째 날 아침. 각자의 집에서, 그리고 홈스테이를 했던 가정에서 영등포 와드로 모인 청년들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흥분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신 세미나를 들으려는 진지한 자세가 묻어났다. 깔끔하고 정돈된 복장과 필기도구, 그리고 경전.

세미나의 오전 시간은 오희근 장로로부터 시작되었다. ‘시온으로 모이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한 오장로는 집합의 장소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또한 젊은이의 힘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희근 장로에 이어 연단에 선 최윤환 장로도 ‘시온으로 모이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최 장로는 아내인 구본경 자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했고, 구

자매는 감동적인 말씀을 전한 뒤 청중들을 향해 애국가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영등포 와드에 천여 명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진 이래 최초였다. 최윤환 장로는 시온으로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시온을 세우고 있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을 소개했다. 그 이웃들 중에는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터전을 잡은 회원도 있었고, 한국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선교 사업을 하고 영원한 결혼에 이른 회원도 있었다. 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부터 갓난아기의 어머니까지 여러 이웃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 최윤환 장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시온으로 모인다’는 것은 비단 해외에 있는 회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 한국에 머물면서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도 온 마음을 다하여 시온을 건립하고, 시온으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영등포 와드, 동작 와드, 화곡 와드로 나뉘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었다. 길게는 반 년, 짧게는 4개월 전부터 세미나를 준비한 강사들은 다양한 주제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었다. 선교 사업에서부터 직업 선택까지, 그리고 건강에서부터 결혼까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와 가르침들이 세미나를 통해 제공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8·8체육관으로 이동했다. 다음 순서인 ‘인도주의적 지원 봉사 활동’을 위해서였다. 청년 대회의 목표 중 하나가 “전 세계 한국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겠다는





동기를 얻는다”인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목표에 딱 맞는 모임이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청년들은 삼삼오오 둘러서서 물건을 포장했다. 쌀, 통조림, 국수, 미역, 치약, 수건 등이 든 생필품 이백오십 세트, 노트, 연필, 지우개, 가위 등이 든 학용품 천 세트가 순식간에 상자에 담겼다. 물품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도카드와 몽문경까지 함께 전달했다. 몽문경에는 청년들이 손수 쓴 간증도 적혀 있었다. 서울 스테이크의 허효진 자매도 몽문경에 간증을 적은 청년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몽문경에 간증을 적기 전에) 이 몽문경을 받는 분들께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고민하고 숙고해서 간증을 적었습니다. 제가 몽문경을 통해서

얻었던 간증을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했고, 특히 우리의 가족이 영원하다는 간증을 더했습니다.”

무도회는 봉사 활동이 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봉사 활동 내내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던 청년들은 어느새 무도회에 어울리는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다. 곧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등장한 미키 마우스 복장의 깜찍한 두 사회자. 청년들은 열광하며 하나 둘 무대로 내려왔다. 첫 번째 곡은 2002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오! 필승 코리아.’ 꾀짓점 댄스라고 불리는 춤에 맞춰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무대 전체를 누비며 좌우로 갔다가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찔러 올리는 춤 동작은 여러 사람을 매료시켰고, 분위기는 단번에 뜨거워졌다. 계속되는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 지칠 법도 하지만 청년들의 열정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함께 웃고, 함께 환호하면서 신나는 놀이의 장을 만들었다. 두 사람씩 짹을 지어 멋진 월츠를 추는가 싶더니 어느새 장고의 경쾌한 리듬에 온몸을 흔들고, 라인댄스의 군무가 펼쳐지는가 하면 금세 차차차와 자이브의 현란한 동작이 이어졌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로 몸을 움직이게 되는 힘찬 춤동작에 스티븐슨 회장과 최윤환 장로 부부도 무대로 나왔다. 수준급의 춤 솜씨를 보이는 두 부부에게 청년들의 열광적인 박수가 쏟아졌다. 춤을 잘 추지 못해도, 나이가 많아도, 교회 회원이 아니어도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무도회의 밤은 그렇게 깊어 갔다.

청년 대회의 둘째 날은 세미나를 듣고, 이웃을 돋고, 함께 춤추는 알찬 시간이었다. 청년들은 무엇에든 열정적이었다. 메모를 하며 강사의 말을 경청할 때도, 물건을 포장할 때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무대를 누릴 때도.



볼제날 / 무도회 Dance Party



배덕수 장로는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며, 지금 이곳이 바로 시온이고,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격려했다.

스티븐슨 장로는 인도주의 봉사 활동과 관련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강의 기적, 그 감동의 현장-8월 14일

셋째 날 모임 역시 세미나로 시작되었다. 배덕수 장로와 스티븐슨 회장이었다. 배덕수 장로는 “여러분들이 지난 이틀 동안 보여주신 활동들이 주님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는 말로 말씀을 시작한 뒤, “교회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그로 인해 능력이 향상 되도록 만듭니다.”라고 전했다. 배덕수 장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는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부름을 줍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특별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님들도 신권 지도자입니다.” ‘후기 성도 인생 계획’이라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진행된 스티븐슨 장로 부부의 세미나는 인생의 단계별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비유로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스티븐슨 장로 부부는 출생, 교육, 연애, 결혼, 육아 등 두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사진과 함께 찬찬히 설명했고, 청년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연한 기회에 종교교육원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사랑이 짹트게 되었다는 두 사람의 연애담은 청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스티븐슨 장로 부부의 세미나는 총관리 역원이자 북아시아지역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들려주는 이야기였기에 청년들이 느끼는 공감과 이해가 더 컸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이번 청년 대회의 하이라이트이자 청년들이 손꼽아



한강 기적 탐험에 나선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들.
맨 아래 사진: 이번 한강의 기적 탐험에는 국회에 방문해서 국회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코스도 있었다.

기다리던 ‘한강의 기적 탐험’이 시작되었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발전, 그 찬란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이 활동은 스무 명 남짓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되었다. 서울시 전역의 명소를 탐사하고 몇 개의 미션을 완수해야 끝나는 이 활동의 진행 시간은

무려 일곱 시간. 조원들 간의 우애와 봉사, 그리고 협동이 없다면 불가능한 모임이었다.

취재팀은 총 3개의 조 중 1 3조와 동행하며 밀착 취재를 했다. 1 3조가 둘러봐야 할 코스는 남산. 1 3조는 조장인 임명철 형제와 이상미 자매를 중심으로 둑글게 모여서 행선지를 의논했다. 첫 번째 미션인 ‘한국은행 본점’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처음으로 함께 모인 1 3조의 조원들은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다. 의견을 내는 사람 없이 짧게 진행된 첫 번째 회의는 일단 지하철역으로 가자는 조장들의 말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 안. 영등포 와드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동안 제법 이야기를 나누어서인지 승강장에서의 두 번째 회의 때는 조금씩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비로 받은 돈을 관리하는 총무와 인원을 점검하는 사람 등 역할을 나누기도 하고, 급기야 파트너까지 정해졌다. 1 3조가 향하기로 한 곳은 명동역. 좁은 지하철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조원들은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라는 규칙이 주어진 건 바로 이런 의도 때문이었다. 명동에서 내려 첫 미션인 ‘한국은행 본점’ 사진 촬영을 순조롭게 마친 1 3조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했다. 식사를 끝낸 뒤에는 본격적으로 남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작열하는



태양이 뜨거웠지만 짙은 녹음과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더위를 어느 정도 덜어 주었다. 하지만 여유로움도 잠시, 남산에서 맞이한 또 다른 미션은 모든 조원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간증을

전하고 연락처 받아오기.' 미션을 수행할 사람으로 뽑힌 김지호 형제와 김아영 자매는 용감하게 사람들 사이로 나아갔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던 외국인들에게 간증을 전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 드디어 외국인들의 연락처를 받은 두 사람은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 그 후에도 13조는 찬송가 외워서 부르기, 보물찾기 등 여러 미션을 수행했다. 뜨거운 날씨는 식을 줄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3조 조원들의 웃음은 더욱 커졌다. 13조에는 열세 명의 청년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청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청년, 아직 침례를 받지 않는 청년까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취재팀의 머릿속에는 청년 대회 주제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시온으로 모이자.' 그들이 일곱 시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시온 그 자체였다.

미션을 끝내고 여의도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 후기 성도 청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유람선을 타기 위해, 그리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쿠엔틴 엘 쿠 장로를 만나기 위해 그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다.

십이사도인 쿠엔틴 엘 쿠 장로는 청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후 바로 여의도 선착장으로 향했다. 쿠 장로를 맞이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은 박수와 환호로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 쿠 장로와 청년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유람선으로 이동했다. 수백 명의 청년들과 쿠 장로가 유람선 두 대에 나누어 타고 한강을 돌아보는 역사상 유래 없는 모임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유람선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 태평무, 기타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유람선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을

갈랐고, 도시의 불빛은 가깝게 내려앉은 별처럼 빛났다. 마냥 신나고 들뜨리라 예상했던 청년들은 오히려 차분한 눈으로 악경을 바라봤다. 휘황찬란한 한강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그들의 눈에는 감동이 서려있었다. 쿠 장로와 청년들은 아름다운 악경에 빠져 한 시간여를 보냈다. 특히 반포대교에서 펼쳐진 환상적인 '분수 쇼'가 즐거움을 더했다. 쿠 장로는 두 대의 배가 만난 한강 가운데서 두 번째 배로 옮겨 탔다. 그곳의 청년들과도 함께 찬송을 부르고, 웃음을 나누었다. 쿠 장로가 부른 어린이 찬송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배에서 내려서는 다함께 모여 쿠 장로의 말씀을 들었다. "며칠 전 제일회장단에게 한국의 성도들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분들께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합니다."

청년 대회의 셋째 날이자 마지막 밤은 뱃전을 스치던 바람처럼 아련하게 흘러갔다. 십이사도와 함께 한강의 기적을 마주하고 각자의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청년들의 얼굴에는 하루 동안의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값지고 특별한 말씀들-8월 15일

쿡 장로가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고 했던 8월 15일 아침이 밝았다. 영등포 와드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회원들이 모였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쿡 장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전국의 신권 지도자들도 함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이 있었다. 영등포 와드 예배실의 맨 앞자리, 연단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 각 선교부에서 온 한국인 선교사들이 모여 앉았다. 쿡 장로의 특별한 허락을 얻어 선교사들도 참석하게 된 것이다. 선교사들은 다른 회원이 모두 자리에 앉은 뒤 예배실로 들어왔다. 그들이 등장하자 회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예상치 못한 환영에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도 있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고투하는 진정한 영웅들을 향해 쏟아지는 박수는 그칠 줄을 몰랐다. 이윽고 모임 시간. 쿡 장로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선택권에 대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만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쿡 장로는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는 일의 사례를 바로 주위에서 찾았다. 연단에 앉아 있던 칠십인 회장단의 코스타 장로와 북아시아지역 회장단에게 그 질문을 한 것이다. 코스타 장로는 연단으로 나와 32년 전으로 되돌아 간 것 같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개종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던 코스타 장로는 스테이크 회장의 지시로 청년들을 위한 큰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다. 기한은 2주였다. 모임은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코스타 장로는 바로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코스타 장로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비유로 이야기를 마쳤다. “우리는 일 년 후 결혼 했지만, 돈이 없어 작은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작았는가 하면 매일 아침, 햇빛이 방으로 들이칠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윤환 장로 부부도 지명을 받아 연단으로 나왔다. 구본경 자매는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최윤환 장로와의 결혼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최 형제와의 결혼을 결심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신앙과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최 장로는 주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점을 존경했습니다.” 스티븐슨 회장과 아오야기 장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향해 결혼에 이르게 된 아름다우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쿡 장로의 결혼 이야기는 쿡 자매가 대신해서 들려주었다. 쿡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신권을 존중할 수 있는 형제를 만나겠다고 소망했다. 그러던 중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쿡 장로를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쿡 자매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쿡 장로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이렇게 정리했다. “군대, 직장, 학업 등, 결혼 전에 많은



쿡 장로님과의 모임 Meeting with Elder Quentin L Cook / 낫째날



것들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쿡 장로는 이어서 청년들의 질문을 받았다.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의 정진 형제는 “부름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신뢰를 보여주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쿡 장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라고 위로한 뒤 다음과 같이 해답을 제시했다. “회원들이 자신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과 표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 지고 싶어 합니다. ……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재능만큼을 발휘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질의응답 뒤에는 코스타 장로의 간증이 이어졌다. 코스타 장로는 백십만 명의 회원이 있는 브라질의 교회 현황을 전하며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성도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제가 26년 동안 봉사했던 와드에서 (BYU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장남이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4세대 회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쿡 장로는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주제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것.’ 쿡 장로는 한국 지역에 시온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한국 땅에서 주님의 사업이 진행되려면 한국 성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국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권고했다. 또한 쿡 장로는 간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쿡 장로는 시현이나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다. “영혼의 느낌, 성신으로부터 오는 느낌은 시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이 영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의 자취고, 그것은 잊거나 지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쿡 장로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과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책임과 축복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쿡 장로는 대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은 충실히 이 대회에 참석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셨습니다.”라고 칭찬한 뒤, “여러분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응답을 성신이 줄 것입니다.”라고 축복했다. 쿡 장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말씀을 끝맺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목표를 향해 정진할 때, 오늘 느낀 느낌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쿡 장로와의 모임을 끝으로 뜨겁고 아름다웠던 ‘2009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가 막을 내렸다. 주님의 사도와 신권 지도자들이 들려준 값지고 특별한 말씀들은 이별의 아픔을 조금은 달래주었다.

바쁘게 지나온 3박 4일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래 없는 전세계 한인 청년 대회, 성인들의 자원 봉사, 회원들의 홈스테이. 이번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외나 지방에서 온 청년들을 위해 회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집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열 명까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청년들을 수용한 회원들은 조금 더 편한 잠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가로로도 늑고, 세로로도 누워야 했던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나누는 모범 속에서 후기 성도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범과 사랑은 청년들이 매일 아침 새로운 각오와 영으로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청년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집으로 향했다. 제주도로, 부산으로, 마산으로, 대구로, 청주로, 대전으로, 그리고 미국과 해외 여러 곳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얼굴에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이 아름다운 땅 한국에서 시온을 세우리라는 의지. 언젠가 다시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리라는 바로 그 의지였다. ■

다음 호 예고

10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청년 대회의 감동과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2009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 특집 기사–간증은 계속된다’가 게재됩니다.